
기획논단

평화의 관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보다
-2015개정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고진아**

-
- I. 머리말 : 역사교육에서 전쟁과 평화
 - II. 역사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전쟁 관련 내용과 성취 기준
 - III.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
 - IV. 평화적 관점의 전근대 전쟁사 관련 서술 제안
 - V. 맺음말
-

【국문초록】

전쟁은 사회와 개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므로 전쟁을 성찰하고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역사 수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는 전쟁을 당연한 일, 필연적인 일로 다루고 영웅과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 집중하였으며 전쟁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주변부로 소외시키는 서술로 비판받아왔다.

* 본고는 2020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제1차 워크숍(2020.08.15.) 「역사교과서에 ‘평화’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발표 요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성사고등학교 역사교사

2015개정교육과정¹⁾에 의한 역사 교과서의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평화 감수성 함양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남성 지배층 위주의 서술은 계속되었고 민중들의 삶의 변화와 고통은 통계 속 숫자로만 제시되거나 ‘수많은 희생’이라는 뭉툭한 표현으로 서술되었다. 전쟁을 국가 발전의 서사로 서술하는 점, 직접적 폭력을 강조하고 이민족을 비인간화하는 서술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시행 예정인 2022교육과정 교과서의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은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첫째, 전쟁의 성격, 목적, 의미, ‘전쟁을 막을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둘째,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 행위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전쟁과 폭력 상황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중의 삶이 결국 민중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쟁과 인간을 단순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신중한 용어와 이미지를 선택한다. 여섯째, 평화적 관점의 논쟁적 질문과 탐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주제어 : 평화적 관점, 행위자 중심 접근, 국가 서사, 논쟁적 질문

I. 머리말 : 역사교육에서 전쟁과 평화

전쟁은 사회와 개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므로 전쟁은 역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도 전쟁 관련 서술 비중이 크다. 특히 전근대 서술에서는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

1) 2015개정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되었으나 역사과의 경우에만 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한 후 2018년 개정을 거쳐 2020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었다.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을 일반적으로 쓰듯이 이 글도 ‘2015개정교육과정’이라 통일하여 쓴다.

고려의 거란·여진·몽골과의 전쟁, 조선의 왜란과 호란과 같은 전쟁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²⁾

사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들의 전쟁 관련 서술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교과서는 전쟁을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또한 소수의 영웅과 전략 전술의 측면에서 전쟁을 드러내고 전략 게임 생중계처럼 전개 과정, 전술, 피해 규모를 기술하기도 했다. 반면 평화의 이야기는 적거나 없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은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들을 극복했을까? 전쟁의 폭력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연구와 주장들은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아홉 종의 평화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화를 생각하는 전쟁사 수업을 만들기 위한 교과서 서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한 개의 단원, 통상 70여 쪽에 다 담았기 때문에 <한국사> 전근대 전쟁 서술이 적어 일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도 함께 검토하였다.³⁾

광범위한 시기의 다양한 전쟁 관련 서술을 검토하다보니 이 글은 개략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섬세한 검토 및 제언이 더 뒤따라기를 바란다.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을 검토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인간을 키우는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

2) 김한중, 2017, 「평화의식과 전쟁사교육」, 『민주시민과 사회를 위한 역사교육』, 135쪽.

3) 그러면서 확인한 것은 <한국사> 교과서의 본문 서술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축약본의 형태라는 점이며 서술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관점과 서술 방식이 비슷하여 급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II. 역사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전쟁 관련 내용과 성취 기준

역사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사의 전근대 영역을 주로 중학교 <역사2>(3학년)에서 주로 다룬다는 것이다. <역사2> 여섯 개의 단원 중 다섯 개의 단원이 전근대에 해당하며, 근현대는 마지막 한 개의 단원에서 모두 다루므로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반면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이며 전근대 서술 분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즉 네 개의 단원 중 1단원에서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모두 다룬다.

<자료1>과 같이 전근대 영역을 주로 다루는 중학교 <역사> 성취 기준에는 전쟁과 대외 관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 영역이 분량이 워낙 적다보니 성취기준 상에 전쟁 관련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수·당과의 전쟁의 경우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전쟁의 배경과 과정, 역사적 의의를 알고 토론한다는 성취기준이 있었지만 2015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에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① <역사2>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중학교, 일부)

▶ 성취기준

[9역08-01] 삼국 통일의 가정과 의미를 동아시아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해 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한다.

[9역09-02] 고려와 송, 거란, 여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이해한다.

[9역09-03] 원 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개혁 정책의 특징과 신진 사대부의 성장을 이해한다.

[9역10-04] 왜란과 호란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 학습 요소

소주제	학습 요소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고구려와 수·당 전쟁, 삼국 통일, 고구려·백제 부흥 운동
고려의 대외 관계	고려의 대외 교류, 대외 항쟁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정동행성, 권문세족, 공민왕의 개혁, 신진 사대부
왜란·호란의 발발과 영향	임진왜란, 병자호란, 명·청 교체

② <한국사>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고등학교, 일부)

▶ 성취기준

[10한사01-01] 고대 국가의 성립·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 체제의 성격을 이해한다.

[10한사01-03] 고려 시대 통치 체제의 성립과 변화를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결 지어 파악한다.

[10한사01-05]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를 국내 정치 운영과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탐구한다.

▶ 학습 요소

소주제	학습 요소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제가 회의, 관등제, 율령, 골품제, 녹읍, 민정 문서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해동 천하, 통치 체제와 정치 운영, 몽골(원)의 영향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	사대교린, 정치 운영의 변화, 왜란과 호란, 북벌론과 북학론

<자료1> 역사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일부)

Ⅲ.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

1. 국가 발전은 전쟁으로 완성되는가

그동안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담론, 민족 항쟁사 중심의 국난 극복의 내러티브, 대외 관계에 대한 침략과 저항 중심의 설명이 주된 흐름이었다는 점이다.⁴⁾ 특히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국가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서사가 기본 전제로 깔려있었다. 새로 개정된 교과서는 어떨까? 여전히 <역사>, <한국사> 교과서의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은 국가 발전의 근거로 서술하고 있어 전쟁을 정당화, 미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토 확장과 왕위 계승의 안정

삼국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며 영토를 넓혀 나갔다. 이를 주도한 왕과 왕이 속한 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한편, 국정 운영에서 밀려나는 부가 생기면서 각 부 사이에 세력의 차이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삼국의 왕들은 왕위 계승의 안정을 꾀하였다.

- <한국사>, 비상교육, 2020, 14쪽

삼국,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처음에 5부 또는 6부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 국가에서 출발하였다. 삼국은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고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왕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하였다.

-<한국사>, 천재교육, 2020, 17쪽

<자료2> 영토 확장을 국가발전 서사로 연결시키는 서술 예시

4) 송치중 외, 2019, 「고려 시대 수업, 교과서 서사의 재구성」, 『역사수업, 함께 궁리하고 더불어 성장하다』, 책과함께, 133쪽.

<자료2>와 같이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탐구는 없는 채 국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발전의 서사로 역사를 바라보며 그 정당성을 기본 전제로 한 서술은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중앙집권화된 영역 국가를 발전된 사회라고 설명하고 있어 학생들은 힘이 세면 약한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고 여기거나, 정복당한 자들의 피눈물이나 불평등한 제국 질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대제국’, ‘대왕’에 환호할 수도 있다.⁵⁾ 영토 확장,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의 의미와 그 속에 가려져 있는 존재와 삶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서술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자료3>과 같이 여전히 <한국사> 교과서가 민족주의를 바탕에 두고 서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이 국가, 민족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역사 교과서들은 전쟁의 역사적 의미 또한 주로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의미로 강조한다.⁶⁾ 우리 역사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주성을 지켜낸 거대서사로 파악하면서 민족적 단결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당연히 민족 구성원 내부의 문제, 사회 모순은 가려지고 우리 민족 이외의 존재는 적으로만 간주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이며 승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생기는데 이런 곳에서 평화 감수성은 자라기 힘들다.⁷⁾

5) 김남철, 2008, 「전쟁으로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294쪽.

6) 김한중, 앞의 글, 152쪽.

7) 김남철, 앞의 글, 296-297쪽.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자,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당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676).

신라의 삼국 통일은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외세인 당을 끌어들이고,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불완전한 통일이었던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사>, 천재교육, 2020, 23쪽

우리 민족 형성의 기틀이 되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대동강 이남의 영토만을 차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 등과 힘을 합쳐 당을 무력으로 몰아낸 점은 삼국 통일의 자주적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포용하고 경제력을 높여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삼국 간 통합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 형성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더 알기> 삼한 일통 의식의 형성

삼국은 오랫동안 서로 대립하고 다투었지만, 혈통·언어·문화 등에서 일정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삼국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싹텄다.……

-<한국사>, 지학사, 2020, 20쪽

<자료3> 삼국 통일을 민족의 자주성 서사로 쓴 서술 예시

2. 이민족을 비인간화하는 서술

많은 역사 교과서들이 여전히 전쟁을 필연적 사건으로 다루고 전개 과정과 발생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계기와 폭력의 효과 서술에 집중하고 있다. ‘전투’가 중심이 되고 전쟁의 구조적 폭력

이나 문화적 폭력성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직접적 폭력을 강조한다. 근현대의 경우 6·25전쟁이나 세계대전의 참상을 서술하지만, 사상자나 경제적 파괴의 파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전근대 전쟁의 경우는 이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⁸⁾

2015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전투에 사용된 무기를 나열하고 전략과 전술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근대 중심으로 서술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그 같은 성격이 두드러진다. <자료 4>는 교과서에서 상당한 분량을 통해 당시 사용된 무기와 전술을 다양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소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도 역사

수군의 전술과 우수한 무기로 본 임진왜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해안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연전연승하였다. 이는 세계 해전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의 판옥선은 여러 대의 화포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학익진 전술



학익진 전술은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중앙의 함대가 후퇴하고, 양의 함대가 앞으로 달려나가 미치락이 날개를 편 모습처럼 상대편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전술이다. 이순신은 이 전술로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함대를 포위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판옥선과 거북선



판옥선은 2층 구조로, 노를 젓는 군인과 포를 쏘는 군인이 다른 층에 배치되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거북선은 판옥선에 거북 모양의 철갑을 덮은 형태로, 주로 맨 앞에서 적선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군의 대열이 무너지면 그 틈을 타 판옥선이 집중 공격하여 일본의 배를 침몰시켰다.

조선의 군선



배 바닥이 넓어 병행 전환이 쉬웠다. 편재가 두꺼워 배가 무거웠지만 선체가 강하였다.

일본의 군선



배 바닥이 좁아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 전환이 어려웠다. 편재가 얇아 배가 가벼웠지만 선체가 약하였다.

우수한 무기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각종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는 총통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일본군의 화력은 조종이 중심이었던 반면, 조선의 함선은 화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강력한 화력을 과시하였다. 조선군은 판옥선과 거북선에 다양한 총통을 설치하여 일본군의 배를 격파하였다.



※ 황자총통(국립중앙박물관)

- <역사2>, 미래엔, 135쪽

8) 김한중, 앞의 글, 147쪽.

② <평양성 탈환도>에 그려진, 동아시아의 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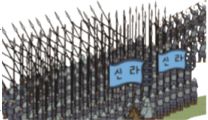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는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되찾는 전투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용한 대포, 조총, 칼 등의 무기와 전쟁 상황을 할 수 있지요.

-<역사2>, 비상교육, 134쪽

● 장창 보병과 쇠뇌 부대
장창 보병은 긴 창으로 기병의 기동력을 약화한 군대였다. 쇠뇌 부대는 사거리가 긴 기계식 활을 이용하여 기병을 격퇴하는 군대였다.

③ ...신라는 장창 보병과 쇠뇌 부대를 육성하고 각지에 산성을 쌓아 당에 맞섰다...

-<역사2>, 미래엔, 59쪽



<자료4> 전투의 양상과 무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술 예시

한편 전쟁은 필연적으로 싸우는 상대가 있다 보니 싸우는 상대, 즉 적으로 규정된 집단을 표현할 때 비하하고 비인간화하는 경우가 있다. 몰살, 섬멸, 정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서술하는 것은 상대는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느끼고 적대감과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민족을 비인간화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는 당연히 없다.

선명한 프레임, 단순한 흑백 논리는 이해가 쉽지만 전쟁사 학습은 단순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직접적 원인과 전개 과정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요소, 경제적 이해관계,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 상대측 사람들에 대한 입체적 이해 등 전쟁을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을 단순하게 학습해서는 안 된다. <자료5>의 ①은 전쟁 상대방에 대해 ‘무리한’ 구실, 대륙 침략의 ‘야욕’으로 서술하여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 ‘무리한 요구’인지, 어떤 것이 ‘야욕’이었는지 드러내지 못한 상태로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전쟁을 단순하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

이 살고 있었다는 것, 전쟁은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① ... 하지만 이후에도 고려가 계속 송과 교류하며 거란과 적극적인 친선관계에 나서지 않자, 거란은 무리한 구실을 내세워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침략하였다...

-<한국사>, 미래엔, 40쪽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 침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였다(임진왜란, 1592).

-<한국사>, 비상교육, 50쪽

이야기샘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을 만나다**

살수에서 살아 돌아간 적이 2,7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살수 대첩의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자의 유인책에 휘말려 적들은 오랜 행군과 굶주림으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적들은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퇴했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 고구려군은 사기가 떨어진 적을 쉽게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전보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보다는 고건무 장군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병동대에 식량을 보급해 위해 미리 상륙했던 수의 해군을 장군께서 평양으로 유인하여 몰살하였습니다. 살수를 건넌 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적들은 살수까지 급히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앞다투어 후퇴하려다 결국 강에 막혀 지멸한 것입니다.

살수 대첩(전쟁기념관 디오라마)

-<역사2>, 미래엔, 55쪽

<자료5> 이민족을 단순화, 비인간화시키는 서술 예시

특히 용어도 신중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5> ②과 같이 살수 대첩에서 ‘적’을 쉽게 섬멸했다, ‘몰살’과 같은 표현이 교과서에 수시로 등장한다. 사실 크게 승리한 전투라는 ‘대첩’이라는 용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간’에 초점을 둔 용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대첩’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전쟁 수행

생생 역사 지식

고구려를 구한
안시성 성주

안시성 싸움은 고구려의 운명을 구한 결정적 사건으로, 그 중심에 안시성 성주가 있었다. 안시성 성주는 연개소문의 정변 시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에 연개소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함락하지 못하였고, 결국 성주가 계속 안시성을 지키게 되었다. 이러한 일화는 그가 용감하고 소신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 준다.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삼국사기』를 쓴 고려 시대 학자 김부식이 그의 본명을 몰라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없게 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본명을 '암반촌'이라고도 하였으나,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안시성은 훗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한동안 저항을 계속하였다. 안시성 성주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안시성 사람들에게 대담 항전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역사2>, 천재교육, 48쪽

인물
속으로

김유신과 계백, 황산벌에서 맞서다



○ 계백

신라의 김유신은 금관가야 왕족 출신으로, 삼국의 항쟁 과정에서 여러 전투에 참여하여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유신은 660년에 5만여 명의 신라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기 위하여 사비성으로 출발하였다.

백제의 귀족이었던 계백은 5천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가서 김유신과 신라군을 맞이하였다.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은 적은 수의 군사로 신라군에 여러 차례 승리하였다. 그러나 반굴, 관창 등 젊은 화랑의 희생은 신라군의 사기를 높였고, 신라군의 총공격이 이어져 결국 백제군이 패하였다.

○ 김유신



-<역사2>, 비상교육, 51쪽

<자료7> 전쟁 영웅을 드러내는 교과서 서술 예시

4. 대강 뭉뚱그려진 민중들의 삶

영웅, 지배층 중심 서술이 중심인 반면 전쟁의 참혹함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민중의 삶과 고통은 주로 그래프, 통계, 숫자로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그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로 대신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들이 가려진다. 민중에 관한 교과서의 대표적 서술은 <자료8>와 같다. 원 간섭기 공녀, 환관 등의 요구를 물품 요구와 등렬 배치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다고만 서술하였다. 또한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을 ‘큰 피해’, ‘수많은 희생’으로 뭉뚱그려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삶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고통스러웠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인력과 물자를 징발하였다. 이 밖에도 공녀, 환관과 각종 물품 등을 요구하여 고려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
 -〈한국사〉, 씨마스, 46쪽

② …또한 왕자를 비롯한 많은 백성이 청에 끌려가 고통을 겪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사〉, 미래엔, 66쪽

③…임진왜란은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은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한국사〉, 비상교육, 55쪽

<자료8> 민중의 전쟁 피해에 관한 서술의 예시

사실 개개인 삶의 변화와 파괴가 전쟁의 본질이다. 항상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의 눈, 지배층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는데 익숙하다. 전쟁의 실상, 관점 또한 의심하며 되짚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 듀란트의 다음 글은 역사 교과서 서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책은 역사를 피가 흐르는 강으로 묘사한다.
 그 강에는 왕들과 장군들과 외교관들이 넘쳐 흐른다.
 그들은 영토와 부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

그러나 그 강가에는 평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밭을 일구며 살아 간다.
 그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10)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자료9>와 같은 의미 있는 시도가 교과서에

10) 이대훈, 2008, 「평화의 개념과 주제」, 『2008 평화교육직무연수 자료집』,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일부 나타났다. <자료8>의 첫 번째 사례는 비록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였지만 삼국 통일 전쟁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학생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탐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사례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은 백성들이 드러나는 사료를 제시하였다. 피지배층 입장에서 전쟁을 생각해보는 이러한 자료와 과제는 기존의 서술과는 다른 시도가 생겼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런 시도가 아직은 자료를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료를 분석하고 깊이 탐구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확장으로 연결되는 구성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탐구 교실 영화로 보는 고대 사회의 삼국 통일 전쟁

영화 「황산벌」과 「평양성」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두 영화가 삼국 통일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한 후, 삼국 통일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자.

- 역사 사실 이해
-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 정체성과 상호 존중

「황산벌」
삼국의 분쟁이 끝이지 않던 660년, 신라는 당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를 공격한다. 백제 의자왕은 개백 장군을 비밀리에 불러 황산벌 사수를 부딪힌다.



「평양성」
백제 멸망 8년 후, 당과 신라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공격한다. 한편 황산벌 전투에서 홀로 살아남은 백제군 거사기가 이변에는 신라군에 잡히면서 평양성 에 건다.



영화 「황산벌」 미리 보기
고구려 백제 신라 당의 가심 회담



연개소문 정통성? 그게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왜? 김춘추, 너는 반쪽짜리 왕족 주제에 김유신이란 깡패공채서 정권 잡지 않았어? 의자왕, 니 아버지도 서자지? 어기 정통성 있는 놈이 누가 있어?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새우려고 하는 거야!
의자왕 아, 그것이 정치적 관용이지.
김춘추 허무기 많다 하고 치들이와 남의 백성 죽이는 게 정치적 경멸이거? 나가 왕이 되고 자넨 20년간 우리 신라는 하루도 편안 날이 없었데야!
의자왕 죽워 초기에 정권 장악하고 국문 통일하려면 다들 하는 거 아냐?

영화 「평양성」 미리 보기
고구려 진영에서 신전 명송을 하는 거사기



거사기 나, 보성 옆에 있는 벌교에서 온 거사기야. 내가 백제 왕 밑에서도 살아 보고 신라 왕 밑에서도 살아봤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다 거사기 거사기. 도간개간이랑 이 말미야. 까놓고 말해서 이 전쟁 누가 이기든지 간에 우리하곤 아무 상관도 없어. 전쟁에 이기면 그 뒷사람들이나 좋지, 우리 같은 농민에게 뭐 떨어지는 거 있어? OO야, 니 듣고 있지? 니 없으니 심심하지? 니 전쟁터에서 총세하려고 왔다면서? 죽야바라건 총세고 나뎠고 무슨 상관이었겠냐? 어째서 신라 왕하고 본진은 안 오고 너희들만 보냈겠냐고? 그것은 바로 어기서는 전쟁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만 싹리고 그러는 기 아니겠냐고!

1 두 영화가 삼국 통일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지배층과 백성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 보자. ♪

2 두 영화에 나타난 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시각을 참고하여 삼국 통일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자. ♪

- <한국사>, 금성출판사, 22쪽

자료

전쟁으로 고통받은 백성

[자료 분석과 해석]

자료 1 경성에서부터 밀양에 이르기까지 죽 만 수북이 들을 덮었고 보이는 곳마다 인적은 없었으며, 적(일본군)이 머물렀던 곳곳마다 백골만이 쌓여 있었고, 굶주린 백성들은 땅에 즐비하게 누워 있거나 …… - 「선조실록」

자료 2 명의 병사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소주와 꿀, 병아리 등의 물건을 찾는 일이 많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큰 몽둥이로 마구 매질하며 고을 수령까지 모욕했다. 그들이 가는 곳의 관원은 맞이 하고 보내는 근심이 있을 뿐 아니라 이처럼 난리가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으니,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 오희문, 『채미록』

해설

전쟁은 원없는 백성들에게는 더욱 고통이었다. 일본군의 만행뿐만 아니라 조선을 도우러 온 명의 군대도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채미록』은 령자 오희문이 임진왜란 당시 보고 겪은 전쟁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긴 피란 일기이다.

-<한국사>, 해냄에듀, 67쪽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뿔혀서 서쪽(원)으로 들어가기를 거른 해가 없었다. 비록 왕실 친족같이 귀한 신분이라도 (자식을) 숨길 수 없고, 어미와 지식이 한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슬픔이 뼈에 사무치고 심지어 병들어 죽는 이도 한둘이 아니었으니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수령 옹주 묘지명

-<한국사>, 금성출판사, 46쪽

<자료9> 민중의 삶이 드러나는 서술의 시도

IV. 평화적 관점의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 제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적 관점의 역사교육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폭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기왕의 교과서들은 그 관점을 아직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역사 교과서와 수업은 평화적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비판과 제안은 천천히 실현되고 있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롤헤스(J.Rolhfes)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역사수업이 평화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주장한다.¹¹⁾ “전쟁과 평화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재앙임을 보여준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변화를 이해시킴으로써 전쟁은 국내 문제이자 국제문제임을 알게 한다.”, “전쟁의 원인과 목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게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역사 교과서 서술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전쟁의 성격, 목적, 의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즉 인간은 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은 막을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헌장에 ‘전쟁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며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라는 표현이 나온다.¹²⁾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수업 속에 녹아나야 하며, 역사 교과서와 수업을 통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 행위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 수업에서 사람들의 삶의 서사를 더 많이 다루었으면 한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애사가 ‘큰 역사’랑 연결되면, 학생들 마음에 흔적이 남고 역사의 무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폭력, 전쟁 상황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전쟁과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거대 권력이나 남성 엘리트 중심의 서사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체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 노인, 어린이, 소수민족 등에게도 교과서 공간이 허락되어야 한다. 평화는 힘없는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역사 수업을 할 때 폭력,

11) 김남철, 앞의 글, 302쪽.

12) 유네스코 헌장, 1946

전쟁으로 누군가의 삶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넷째, 민중이 겪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같이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주목해야 하지만 그러다보면 민중을 수동적 존재로 그리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중의 삶이 외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점도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¹³⁾ 그와 관련하여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모색하는 능력 키워야 하며 갈등과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시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순히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폭력과 갈등을 표면적이고 자극적으로 쓰기보다는 깊이 있는 서술과 맥락을 담아야 한다. 또한 신중한 용어와 이미지를 선택하여 적대감과 편견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관점의 자료가 발굴되고 평화적 관점의 논쟁적 질문과 탐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자료10>과 같은 ‘경기도 논쟁 수업 연구 모임’에서 제시한 논제들은 이런 논의의 확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 <전쟁·평화 관련 논제 예시>¹⁴⁾
- 내가 위만을 바라보는 태도와 한국 속 이주민을 바라보는 태도는 같은가?
 - 광개토왕은 대왕인가?
 - 과거사의 영광은 현재 우리의 영광인가?
 - 교과서의 대송 관계 서술과, 대거란·대여진 서술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 고려의 대외관계 지도 다시 그리기
 -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휘부의 생존이 우선인가?(무신정권의 강화 천도를 소재로)
 - 서경인들은 왜 다루가치를 살리려 반란을 일으켰을까?
 - 일반 군졸들에게 위화도회군은 어떤 의미였을까?
 - 왕조 국가의 전쟁에서는 왕의 생존이 최우선인가?
 - 이윤 창출을 위한 애국 마케팅, 문제는 없을까?
 - 임진왜란을 지칭하는 한·중·일 역사 용어 비판, 대안 용어 탐색
 - 일반 백성들에게 사대외교는 어떤 의미였을까?

<자료10> 전쟁과 평화 관련 논제 예시(경기도논쟁수업연구모임)

13) 김한중, 앞의 글, 164쪽.

14) 경기도 논쟁 수업 연구 모임, 2019, 『논쟁이 살아있는 역사수업』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쟁 인식을 전환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존재를 환기시켜주는 논쟁적 질문과 탐구과제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

V. 맺음말

전쟁은 사회와 개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므로 전쟁을 성찰하고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역사 수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 교과서는 그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전쟁을 당연한 일, 필연적인 일로 다루고 전쟁 영웅과 전략·전술적인 측면에 집중하며 엄청난 피해를 겪었던 민중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서술이 특히 비판받아왔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새 교과서들도 여전히 성찰과 평화 감수성 함양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남성 지배층 위주의 서술은 주된 흐름이며 민중들의 삶의 변화와 고통은 ‘수많은 희생’과 같은 뭉툭한 표현으로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또한 전쟁을 국가 발전의 서사로 서술하는 점, 직접적 폭력을 강조하고 이민족을 비인간화하는 서술 등의 문제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자료, 탐구과제가 일부 배치되는 유의미한 시도도 분명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확장되고 공감대가 넓어진다면 교과서 서술 속에서도 평화적 관점이 녹아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22 교육과정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 교과서에 평화적 관점의 전근대 전쟁 관련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전쟁의 성격, 목적, 의미, ‘전쟁을 막을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둘째,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 행위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 전쟁 상황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중의 삶이 외적 조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민중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쟁과 인간을 단순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신중한 용어와 이미지를 선택한다. 여섯째, 평화적 관점의 논쟁적 질문과 탐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전쟁, 폭력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평화를 가르치고 싶다. 평화를 향한 교육적 고민과 실천은 긴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지난한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르지 않기보다는 한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역사교육의 모색이 필요하다.

[투고일: 2020.10.15, 게재확정일: 2020.11.30.]

【참고문헌】

- 최준채 외, 2020, <한국사>, 금성출판사.
박중현 외, 2020, <한국사>, 해냄에듀.
노대환 외, 2020, <한국사>, 동아출판.
신주백 외, 2020, <한국사>, 씨마스.
한철호 외, 2020, <한국사>, 미래엔.
최병택 외, 2020, <한국사>, 천재교육.
도면회 외, 2020, <한국사>, 비상교육.
송호정 외, 2020, <한국사>, 지학사.
이익주 외, 2020, <한국사>, 리베르스쿨.
김형종 외, 2020, <역사2>, 금성출판사.
김태웅 외, 2020, <역사>2, 미래엔.
이병인 외, 2020, <역사>2, 비상교육.
- 송치중 외, 2019, 『역사수업, 함께 궁리하고 더불어 성장하다』, 책과 함께.
- 김한중, 2017, 「평화 의식과 전쟁사 교육」, 『민주사회와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남철, 2008, 「전쟁 이야기로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 정희연, 2020, 「전쟁하는 인간에서 평화하는 인간으로」, 『역사교사,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 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교육연구소.
-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비아북.
- 이대훈, 2008, 「평화의 개념과 주제」, 『2008 평화교육직무연수 자료집』,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경기도 논쟁 수업 연구 모임, 2019, 『논쟁이 살아있는 역사수업』.